

농구

8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콤팩트 뉴스

KBL, 올 시즌도 '사랑의 3점슛' 캠페인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지난 시즌에 이어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에서도 서울시 금천구 희명병원과 함께 프로농구 '사랑의 3점슛'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이 캠페인은 KBL 소속 10개 구단이 모두 참여해 2019~2020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와 올스타전, 플레이오프에서 3점슛 1개당 1만 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KBL은 지난 시즌 총 4614개의 3점슛 성공으로 적립된 4614만 원을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인권관철 수술비에 지원했다. 올 시즌 모인 후원 금액은 금천구 지역 사회와 구단 연고지 소외 계층 의료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르브론 제임스, 3경기 연속 트리플더블

미국프로농구(NBA) 스타인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6일(한국시간) 유니াই티드센터에서 열린 2019~2020 NBA 정규리그 시카고 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30점·10리바운드·11어시스트로 트리플더블을 기록했다. 그는 3일 댈러스 매버릭스(39점·12리바운드·16어시스트), 5일 샌안토니오 스퍼스(21점·11리바운드·13어시스트)와의 경기에서 이어 이날까지 3경기 연속 트리플더블을 생산했다. 이와 함께 NBA 역대 최고령(34세310일) 3경기 연속 트리플더블 기록도 갈아 치웠다. 종전 기록은 34세291일의 제이슨 키드(은퇴)였다. 제임스의 활약에 힘입어 레이커스는 118-112로 승리하면서 6연승을 달렸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성적도 흥행도 굿! 신바람난 전자랜드

1 선두질주 2 최다 관중 3 마케팅 성공

가드 중심 농구 정착·선수들도 진화 LG전팬 6895명 관중 '작년의 두배' 잘 팔리지 않는 좌석은 가격도 다운 예매후 곧바로 입장 '팬 퍼스트' 효과

인천 전자랜드가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개막 이후 고공 행진으로 신바람을 내고 있다. 성적과 흥행 모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자랜드는 6일 현재 8승2패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시즌 개막 이후 4연승을 기록하다 전주 KCC와 서울 SK에게 연속 달미를 잡혔지만 이후 펼쳐진 4경기를 모두 끌어 담으면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바뀐 팀 컬러의 빠른 안정화다. 전자랜드는 지난 시즌까지 장신 포워드 중심의 농구를 펼쳐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아쉽게 정상 등극에 실패한 뒤 올 여름 장신 포워드 정효근(26)이 군에 입대하자 팀 색깔에 변화를 줬다. 전력의 중심을 가드로 이동시켰다. 이를 위해 득점력이 좋은 슈팅 가드 새넌 쇼터(30)를 외국인선수로 선택했다. 프로 3년차 김낙현(24)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자랜드가 추구하는 가드 중심의 농구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부족한 높이는 머피



인천 전자랜드의 손흥이 농구계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4연승을 앞세워 선두를 달리는 전자랜드는 흥행에서도 오름세를 보이며 프로농구를 선도하는 구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3일 창원 LG와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뒤 기뻐하고 있는 전자랜드 선수들. 사진제공 | KBL

할로웨이(29)를 필두로 강상재(25), 이대현(27)이 책임을 지고 있다. 그 덕분에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과의 대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 국내선수 리바운드 1위에 올라있는 강상재는 상대 빅맨 수비 등 굵은일에 집중하면서도 정확한 외곽슛을 앞세워 장신 포워드의 능력을 뽐내고 있다. 지난 시즌보다 기량이 한층 더 발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흥행에서도 KBL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주목도를 자랑한다. 전자랜드는 3일 창원 LG와의 홈경기에서 이번 시즌

KBL 한 경기 최다인 6895명의 관중을 유지했다. 이번 시즌 홈 7경기 평균 관중은 5038명. 지난 시즌 같은 기간(평균 2576명)에 비해 약 2배의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홈 27경기 평균 관중(3791명)보다도 월등하게 높아진 수치를 기록 중이다. 팀이 좋은 경기 내용으로 호성적을 내는데다 지난 시즌부터 티켓 세일링 방식을 달리한 게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관중들이 선호하는 좌석의 입장료를 소폭 인상하는 대신, 평소 잘 팔리지 않는 좌석의 가격을 다운시키는 등

다양한 입장권 판매 정책으로 팬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중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예매한 팬은 별도의 입장권 교환 없이 곧바로 입장하는 시스템을 갖춰 예매 관객이 대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꾸준한 관중 유입으로 구단의 입장 수익도 확대됐다. 3일 LG전에서 약 4500만 원의 입장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전자랜드 창단 이후 한 경기 최고 금액이었다.

최홍석 기자 gtyong@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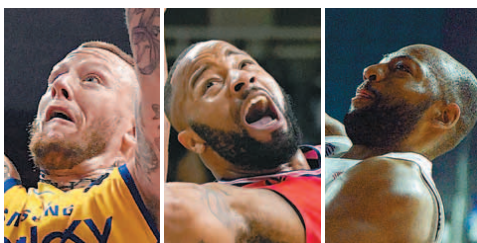
비싼만큼 제 값하는 미네라스…쇼터·윌리엄스 가성비 짱

(삼성) (전자랜드) (KCC)

약5억3000만 원 10개 팀 외인 중 최고 평균 22분 뛰고도 20점 득점력 홀룡 쇼터 15점·윌리엄스 14.9점 알토란

국내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외국선수 연봉을 팀별 2명 합계 70만 달러(약 8억1000만 원), 1인 최대 50만 달러(약 5억8000만 원)로 규정하고 있다.

10개 구단 20명의 외국인선수(라건아 제외) 중 최고 연봉자는 서울 삼성의 니 미



미네라스(31·200cm)다. KBL에 공식된 미네라스의 연봉은 46만 달러(약5억3000만 원)다. KBL에는 올 시즌 데뷔했지만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에서 꾸준히 좋은 경력을 쌓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왔다.

미네라스는 6일까지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11경기에서 평균 20.3점·5.4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다. 경기당 22분7초만 뛰고도 많은 득점을 올렸다. 오프시즌 연습경기 도중 무릎 부상을 당한 여파에 동료들과의 팀워크도 잘 맞지 않아 시즌 초반에는 몸값을 못했다. 그러나 경기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강점인 득점력을 뽐내고 있다. 삼성은 4승7패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지만, 미네라스의 적응력이 높아지면서 팀의 경기력도 나아지고 있다. 미네라스 다음으로는 서울 SK의 자밀 위

니(25·200cm·45만 달러), 전주 KCC의 조이 도시(36·200cm·38만700달러)가 높은 연봉을 받는다.

'가성비'는 인천 전자랜드의 새넌 쇼터(31·186cm·30만 달러)와 KCC의 리온 윌리엄스(33·197cm·22만920달러)가 최고다. 쇼터는 평균 15.2점·4.2리바운드·2.6어시스트로 팀의 해결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윌리엄스는 평균 14.9점·9.7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KCC의 버팀목으로 활약 중이다. 울산 현대모비스에서 라건아의 멘토 역할을 하는 아이라 클라크(44·200cm·12만 달러)를 제외하면 연봉이 가장 낮은 선수는 고양 오리온의 조던 하워드(23·179cm·16만 5800 달러)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곤지암 할매 소머리국밥 60년 전통의 맛!

오랜시간 우려낸 진한 육수
100% 국내산 소머리만을 취급합니다

가맹점 모집 1588-3892

유사브랜드 주의 **NAVER** 공지암 할매 소머리국밥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본사에서 선투자 하겠습니다

장사가 안되시면 간판만 바꿔 대박나시고 성공하세요

업종 전환
250만원으로 **OPEN**

가맹/취급점 500호점 오픈 지원 혜택
간판, 섀팅, 홍보물, 포스, SNS, 블로그, 각종 홍보 지원

성공사례(마진율이 높음)

시, 군, 면, 도로변 식당, 골프장, 공업단지, 공원, 주택가 등에서 소머리국밥 집으로 변경하여 성업중에 있습니다

20여가지 메뉴 중 지역, 장소에 따라 선택

소머리국밥, 갈비탕, 나주곰탕, 도가니탕, 독배기불고기, 뼈해장국, 설렁탕, 육개장, 순대국, 장터국밥, 내장탕, 양명 해장국, 추어탕, 삼계탕, 감자탕, 술국, 소머리수육, 소곱창전골, 곰창구이

11월 오픈예정점

경북 경북대점, 서산 시민회관점, 대구 신암점, 서울 면목점, 대전 서부터미널점